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경적 리더의 3가지 요건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신 미래목회포럼 대표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님과 미래목회포럼 이사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위원과 이사진, 임원진 및 참석해 주신 모든 회원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모이신 교계의 지도자분들과 함께 “좌와 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극명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진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금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을 가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성경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요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훌륭한 인성을 지닌 리더여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각종 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존감이 위협받는 등 사회적·개인적 문제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간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하여 결국은 인격적인 자존감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이버 보안 문제 및 인공지능을 악용한 범죄도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착한 소비, 가치 소비, 공유 경제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대이므로 무엇보다도 인성 및 협업 역량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사회를 이끌어 갈 건강한 정체성 및 탁월한 인성을 지닌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크게 세 개의 키워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직>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정직”입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 시대에 황희와 맹사성과 같은 정승들이 가졌던 청빈 사상과 같이 현대사회의 공직자들 역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기를 모든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정직의 자세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리더로서의 기본 덕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에서 자주 접하셨듯이 대한민국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온 과거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또한 살아갈 미래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력으로 인해 인사청문회 등에서 지탄을 받고 결국은 낙마하고 마는 경우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성경적 리더는 바로 정직한 모습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가진 훌륭한 인격을 갖춘 리더여야 할 것입니다.

<겸손(섬김)>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겸손(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목수였던 아버지와 동정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누이신 자리가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수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야의 모습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까이에 늘 계셨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리더 역시 이런 겸손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가진 리더는 또 다른 사회의 분열을 초래할 것입니다. 겸손의 자세가 없는 자가 어찌 일반 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더더욱 소외계층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정체성 및 탁월한 인성을 갖춘 성경적 리더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자세입니다.

<용기(담대함)>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용기입니다.

리더는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리더는 누군가를 이끌고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비유컨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리더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호를 향해 해 나가는 선장과 같은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이끌고 가야 하는 선장은 여러 모습의 승객들을 아우르고 이해하며 그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부흥과 새로운 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나라, 국력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지로 가는 항해에는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큰 빙산을 만나 좌초될 수 있는 위기도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항해 길에서도 선장이 된 리더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용기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물론 한반도의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뛰어난 외교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외교적인 전략과 전술도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강국의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곳에서부터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인성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생명 존중, 자유, 배려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존중>

누가복음 15:4 ~ 6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나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인 바로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는 이러한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은 0.97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이후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초저출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령화 문제 또한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8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경적 리더는 바로 생명 존중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여야 합니다. 생명과 창조질서를 강조하는 리더는 분명코 인구절벽시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환경을 마련할 것이며, 그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지 않고

자연스레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성경적인 가치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헌국회가 기도로써 개회를 한 것만 보아도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아래 세워진 국가인지는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로서 자본주의를 동반하며, 이는 기독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해 왔습니다.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자본주의 정신은 기독교에서 나왔으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종교개혁과 우리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와 그 역사를 함께 해 왔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지난 2,000여 년의 역사 속에 다양한 형태의 정치 구조가 실험되었습니다. 왕이 곧 법이요 모든 정치의 중심이 되었던 왕정시대에는 일부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어머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왕이라는 계급이 가진 권력은 어느 누구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왕이 절대권력으로 지배하던 시대는 시민 혁명 또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부분 국가가 그 막을 내렸습니다.

19세기 중후반, 독일의 철학자 카를 마르크스는 기존의 이상적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자본론을 통해 자본주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20세기 초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 소련과 중국이 대표적인 공산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역시 이론상으로는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지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20세기 후반 우리는 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

의 붕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주의, 군국주의 등 다양한 정치 형태의 국가들이 20세기에 나타났지만 결국 모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 중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대부분 자유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즉, 개인을 기본으로 한 사회, 국가의 경제적인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는 자유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과 신앙의 자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은 창의적인 생각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새로운 것들이 발명되고 인류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교육은 자유가 뒷받침되지 않는 획일화된 교육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가치들인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과 독창적인 사고가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 형태는 교육의 자유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앙의 자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만 해도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 교회에서 숨죽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북녘의 동포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 자유가 없어지게 되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 역시 지속적으로 지켜 줄 수 있는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뜻한 배려>

생명과 자유의 성경적 가치관과 더불어 따뜻한 배려의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로마서 등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중요한 만큼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 역시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복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사건 이후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작년 2019년에도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빛과 생활고에 허덕이다가 비슷한 방식으로 집단 자살한 것을 포함해 생활고에 따른 일가족 자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젠 아무런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4년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개정된 법률로도 정작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쏙 빠져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새로운 성경적 리더가 사회의 낮은 곳을 전반적으로 잘 들여다보며,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문제발견 및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와 혁신의 리더여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know-how’의 시대를 넘어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더욱 중요해진 ‘know-what’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인문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know-what)를 찾아내고,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know-how)를 구현해 내는 공학적 기술력이 함께 융합적으로 작용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필요 및 문제들이 대부분 한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 융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려할 때, 인문학적인 사고력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는 능력과 새로운 것을 상상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35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고 선택해야 하는 리더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마치 나와 내 가족의 어려움 또는 문제로서 인지하는 리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그들의 문제에 접근해 나갈 때 비로소 이웃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High Tech-High Touch형 리더를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발전과 진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자질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단기간 내 고도의 성장을 거쳐 오늘날 GDP 규모 세계 10위권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동력은 선진국의 선진 기술과 모델에 집중하여 최대한 빠르게 모방하고 열심히 뒤따라가는 성공적인 패스트팔로워(Fast-Follower)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를 앞서 나가는 초일류 국가, 초일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창의와 혁신을 만들어 내는 퍼스트무버(First-Mover)가 되어야 합니다. 즉,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 시대가 콜리앗과 같은 거대한 하드웨어적 규모보다 다윗처럼 용감하고 민첩한 혁신성을 가진 리더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성경적 리더의 3가지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터널 안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이러한 어둠의 시대를 새로운 빛으로 새롭게 밝혀줄 새로운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을 줄 우리의 리더는 반드시 성경적 리더십에 기초한 리더여야만 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훌륭한 인성의 기초 위에 성경적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는 뼈대를 잘 쌓아 올려 문제의 발견과 해결능력을 동시에 갖춘 창의와 혁신의 지붕을 덮어 잘 지은 집이 되어 어떠한 풍파에도 우리 국민들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리더가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창조질서를 강조하며,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따뜻하면서도 효율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지만 인성적인 면에서도 진실되며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를 잘 분별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총장

장순흥